

부산 신발산업의 재구조화와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주 미 순

부산대학교등학교

우리나라 신발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 신발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을 도입기, 대량생산기지로서의 성장기, 구조조정기, 네트워크 생산체제의 정착기 등 네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는 1920년대 신발산업이 부산에 도입된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이 시기의 주요 생산품은 고무신류이며, 소수의 대기업에서 대량의 저임금 남녀노동력을 고용하여 기업조직 내에서 일괄대량생산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미국·영국 중소기업들의 생산기지가 건설되었고 원료수입 항구를 중심으로 주로 분포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제적 환경에 변혁이 일어나는 1980년대 중반까지이다. 주요 생산품은 운동화류이며, 이전의 대기업들이 미숙련·저임금의 여성노동력을 대량으로 고용하여 기업조직을 확대하여 대량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량의 저임금·미숙련 노동력은 산업체 특별학급을 통해 조달되었고, 부품 생산과정이 분화되면서 노동력 수요가 다양화되었다. 공간분포 상의 특성으로는 기존 입지지역 외에 사상공업지역과 금사공업지역 등 신설의 공업지역으로 확산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이다. 대량생산기지들이 저임금 국가로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생산기능은 약화된 반면, 구상기능이 강화되어 핵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부문의 축소로 인해 생산부문 노동력은 급격히 감소한 한편, 계층적인 노동수요가 발생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중소규모의 완제품 조립업체 증가와 중소규모의 부품 및 소재 생산업체의 증가로 인해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입지하였다.

네 번째 시기는 네트워크 생산체제의 정착기로 부품 및 소재 생산업체들과 국내·외의 완제품 조립업체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구조조정기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핵심기능은 더욱 강화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신발업체를 대상으로한 핵심기능 업무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요 생산품은 부품 및 소재 생산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핵심기능 인력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였으며, 핵심기능 인력과 부품 및 소재의 개발·생산을 위한 노동력 재생산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미숙련 노동력의 이용을 위해 하청이 증가되었으며, 저임금 국가의 노동력을 산업연수생으로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입지특성으로는 전통적으로 신

발산업이 발달한 항구 부근과 사상공업지역, 금사공업지역, 신평·장림공업지역 등의 공업지역으로 집적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부산 신발산업의 재구조화는 세계적·국가적·국지적 차원에서 생산 및 시장 요인과 노동력 요인 등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입기와 대량생산기로서의 성장기에는 세계적인 생산 및 시장 요인에 의해 선진국의 생산기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어, 대량고용을 통한 기업조직의 외연적 확대가 주로 이루어졌다. 한편, 구조조정기와 네트워크 생산체제의 정착기에는 국가적·국지적 차원에서 발생한 노동력 요인에 의해 생산 및 고용의 감소와 생산기능의 변화와 공간적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기업의 조직 해체와 기능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산 신발생산업체의 대응 전략 또한 복합적이다.

이상과 같이 산업 재구조화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기업전략일 뿐만 아니라, 특정 전략의 채택 결과 노동력의 고용 및 통제조건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부산 신발산업의 노동과정은 많은 부분으로 파편화·분절화되어 있어 단일 기업의 노동과정 분석보다는 대상으로 다양한 노동과정들의 결합에 따른 기업유형별로 노동과정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산업공간 연구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부산 신발생산의 핵심적 노동과정은 제품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부품 및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식집약적인 과정으로 다양한 과학적인 기초지식이 있는 전문 다기능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사 상표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품 및 디자인 개발과 부품 소재 개발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으로 생산을 주로 하거나 부품 및 소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에는 이 과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신발 생산 기술과 지식이 축적된 OEM 완제품 생산업체는 자체 부품과 소재 등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에이전트 업체의 경우에는 제품과 디자인 개발과 소재 및 부품개발의 노동과정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신발생산의 두 번째 노동과정인 기술적인 생산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는 모든 유형의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대체로 고기능·고속련의 노동력이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은 자사 상표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에이전트 업체의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제품 및 디자인 개발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째 단계인 완제품 조립과정 또는 네 번째 단계인 부품 및 소재 생산과정과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기능화 되어 있고 신발생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숙련 노동력이 중심이다.

세 번째 노동과정은 각종의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단계이며, 완제품 조립과정에 종속적인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완제품 조립단계와 달리 숙련의 남성노동력이 주류를 이루며, 여성노동력은 보조적인 작업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네 번째 완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숙련·미숙련의 여성노동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 기업의 조직내에 제품 디자인 개발에서부터 조립단계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조립 단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여성노동력을 주로 고용하여 완제품의 조립과정만을 수행하는 기업도 있다. 이 노동과정에서는 제품의 생산량 변동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위해 임시적 고용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마지막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과정에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해야하기 때문에 신발생산과정에 관한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영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능력을 겸비한 전문 노동력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노동과정별 노동력 특성을 바탕으로 부산 신발업체의 유형별 노동과정의 공간적 특성을 종합하면,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핵심 부품 및 소재 개발, 마케팅기능, 무역기능 등의 핵심기능은 자사상표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만 수행하며 주로 서울과 부산의 사상공업단지내에 입지하고 있다. 또한 중요 부품 및 소재 개발·생산, 기술적인 생산가능성의 검토 등의 준핵심기능은 모든 유형의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중요 부품 및 소재 개발·생산은 주로 완제품 조립의 과정이 기업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며, 기술적인 생산가능성의 분석기능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유형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과정이다. 이러한 준핵심기능은 부산의 사상 및 신평·장림공업단지, 김해의 안동공업단지 등의 전통적인 신발업체 집적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또한 완제품의 조립과정은 핵심기능과 함께 수행되는 경우도 있고 준핵심기능과 함께 수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자사의 기업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화되기도 하여 노동과정의 공간 분화 범위가 가장 넓다. 즉 부산의 사상, 신평·장림, 그리고 김해의 안동공업단지 등 국내의 전통적인 신발산업 발달지역뿐 아니라,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저개발 국가로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부품 및 소재의 개발·생산의 경우, 핵심 부품 및 소재는 선진국에서, 중요 부품 및 소재는 부산의 완제품 생산업체나 혁신적인 부품 및 소재 생산업체에서, 그리고 표준화된 부품 및 소재의 생산은 주로 후발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 신발산업의 생산체계 및 그 공간분화의 변화는 노동과정과 그 노동과정에 적합한 노동력의 질적 구조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규정된다. 즉 특정산업의 변화는 생산체계와 노동과정의 상호보완적 변화를 수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지적 노동시장의 노동과정의 변화가 노동분업의 성격과 정도, 자본과 노동의 결합방식, 노동력 및 조직 방식 그리고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변화를 수반하는 동시에 다면적이고 중층적 공간분화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동일 공간 내에 상이한 노동과정이 공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동과정의 변화로 부산지역은 핵심기능부터 완제품 조립단계까지 거의 전 노동과정을 수행하는 국지적 노동시장으로서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 신발산업의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부분, 즉 핵심기능을 담당할 노동력을 양성하는 제도적 환경의 구축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현재 부산의 신발산업이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동력 재생산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